



◇ '생태계의 보고' 천성산을 살기 위한 지을스님의 3천배 정진은 계속되고 있다.

“천성산 끝까지 지키겠다”

경부고속철 관동노선 강행결정 소식에도 지을스님, 3천배 기도 조금도 흔들림없어

“언제가는 결정이 날 일이다. 기다리던 소식은 아니지만 3천배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도와 함께 이제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시점이라고 여긴다.”

천성산의 생명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3천배 기도를 시작한지 38일째, 지을스님은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19일 그 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급경사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안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그러나 지을스님의 3천배 기도는 조금의 흔들림없이 이어졌다. 오래전부터 부어오른 무릎보다, 절을 할 때마다 다시 찾아오는 고통보다 '기존 노선 강행'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괜찮다'는 짧은 말로 일축하고 다시 절을 할 뿐이었다.

추석연휴동안 지을스님은 삼천배 기도 틈틈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동영상 시디(CD)를 준비했고 15일 방송후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왔다. 그 시디에는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지을스님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았다. “아픈 국토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서원으로 시작된 이 기도의 응답을 훗날 우리 후손들은 역사라고 이야기 할 것”

이러며 노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던 스님의 최후통첩에 정부는 기존 노선 강행이라는 대답을 보내온 셈이다. 그러나 스님은 “아직은 희망을 놓을 수 없다. 천성산이 환경과 생명 문제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와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스님은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공사장지가 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스님은 기존 노선 강행 발표가 난 19일 이후 더욱 바빠졌다. 19일 재판을 담당할 변호사를 만나고 20일과 21일에는 천성산 안팎에서 전국의 50여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생명에 대한 없다’는 2차 토론회를 열고 중, 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미희 기자

캄보디아에 컴퓨터·생활품 지원

실천승가회, 고아원·직업훈련원 건립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직무대행 일문, 이하 실천승가회)가 불교국가 캄보디아에 컴퓨터 및 생활품을 지원한다. 또 고아원, 직업훈련원, 초등학교 등 종합 복지시설 건립과 유학 및 근로자 기술 지원 사업 등 인적 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실천승가회는 9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정보화 인프라 시설 지원을 위해 펜티엄III 컴퓨터 75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30대, 종교부 20대, 국가관광위원회 25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불교 종단 및 복지시설, NGO 등에 세면도구, 수건, 내의 500세트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를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현지를 방문한다. 지선(실천승가회 상임고문·성관전 의장)·효림(지도위원)·스님 등이 참석하는 이번 방문에서는 프놈펜 소재 고아원 등 복지시설 방문, 중정 텃밭 스님 친견, 시애틀 주 정부 방문 및 주지사 면담 등이 계획되었다.

실천승가회는 캄보디아 시애틀 인근 지역 10,000여평 부지에 50~100여명 규모 고아원과 IT 및 영어 교육을 실시할 직업훈련원, 40명 기준 2개반이 운영될 초등학교 건립도 추진중이다. 올해 11월까지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2004년 상반기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9월 8일 캄보디아에 지원할 컴퓨터와 생활품 선적식을 가졌다.

기 고아원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 하반기부터 캄보디아 불교청년회 소속 회원이나 NGO 활동 지원자(1년 2명 내외)들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 지원 사업을 펼친다. 또 캄보디아 정부를 통해 선발된 불교청년 근로자(1년 10명 내외)들

을 대상으로 한국내 불자기업 취업 유도를 하는 근로자 기술 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직무대행 일문 스님은 “이후 법인을 설립해 여러 불교국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미얀마 유학생·근로자를 초청해 열린 영남불교대의 추석맞이 법회.

미얀마 유학생·근로자 위로법회

영남불교대,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

추석을 타향에서 외롭게 보내는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들의 외로운 달래주기 위한 법회가 영남불교대에서 열렸다.

영남불교대학은 9월 10일 대구·서울지역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층 대법당에서 추석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올해 초 경북대 농경제학과에 유학중인 틴틴씨가 한국 사찰을 순례하던 중 영남불교대학과 인연을 되면서 우리의 비슷한 문화 가진 미얀마 출신 외국인들을

위로 마련했다.

이에 앞서 영남불교대학은 지난 8월 미얀마에서 이윤혜 은 부처님을 영남불교대학 7층 법당에 봉안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들의 정기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얀마 유학생 및 노동자들은 영남불교대학 측에 감사로 표하기 위해 어려운 생활환경 가운데서도 심시일반으로 모금한 50여 만원을 영남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무료급식소에 보시했다. 박원구 기자

동국대의료원 파업 타결

임금 4.9% 인상 등 합의

한달 여 이상 이어졌던 동국대의료원 노조의 파업이 9월 18일 새벽 국적으로 타결됐다.

동국대의료원과 노조는 17일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 결과 주요쟁점 사항인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총액기준 4.9%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인력의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12명을 신규채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TO가 있는 33명은 정규직 전환을, 이외에는 정규직의 70~80%에 준하는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작성해 상호 교환했다.

지난달 13일부터 46일간 파업이 지속되면서 파행운영이 불가했던 경우와 포함 동국대병원, 경주한방

병원은 이날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노조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해 운영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한일의 화해와 수교의 역할을 수행했던 조선의 밀사 사명대사의 활약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조명하는 서사극 <조선밀사 사명>이 무대에 오른다.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단장 이윤택)가 1592년~1600년대를 배경으로 조선통일사의 기틀을 다진 사명대사 유정의 일대기 <조선밀사 사명>(강석원 작, 이윤택 연출)을 9월 23일 밀양시문화체육관과 9월 26일 부산 옹두산공원에서 선보인다. 이번 연극은 경상남도과 밀양시가 사명대사 열반일과제 1회 조선통일사 한일문화교류축제를 기념하고자 제안, 후원해 만들어졌다. 특히 <조선밀사 사명>은 호

국불교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법배음악, 불교시물, 선무도 등을 공연양식으로 재창조하고 가부기, 분라쿠, 노오 등 일본 전통양식과 마쭈리 춤계 양식을 대비시켜 한일 양국의 전통 공연 양식이 공존하는 독특한 서사극으로 꾸며진다.

연희단거리패 배우장이자 <시골선비조남명>으로 2001년도 서울국제연극제 연기상을 수상한 조영진 씨가 사명대사로 분하고 연희단거리패 앙상블, 김금희 무용단, 타악그룹 온누리, 밀양대학교 하데스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055)355-2308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일 양국 전통공연양식 공존 서사극

시명대사 활약상 연극으로 만난다

용문사 윤장대 보수불사 회향

10월 4일 윤전법회 ... 일반에 공개하기로

고려시대 조성된 회전식 장경각인 예전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가 3년여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다시 일반에 공개된다.

용문사는 10월 4일 용문사 윤장대 보수공사 회향을 기념하는 윤장대

윤전법회 및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용문사 윤장대는 지난 1980년 보물로 지정되면서 매년 한차례만 일반인들이 직접 윤장대를 돌리는 윤전법회를 봉행해 왔다. 지난 2000년부터 보수공사를 벌여 최근 회향한

윤문사는 앞으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윤전법회를 봉행해 불자와 일반인들이 윤장대를 직접 돌릴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1177년(고려 명종 7년)에 조성, 일원주(圓柱)를 중심으로 한 팔각정모양의 용문사 윤장대는 8각으로 된 상량각구에 다묘(多包)집의 공포(뱀문)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윤장 맨 밑 부분은 차차 좁아져 마루를 뚫고 회전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져 있다.

박원구 기자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름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붙어있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매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의 : 저의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애자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에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매자 성광수씨가 재매만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4-3733

장흥대원정사

봉 영가 천도재 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오는 10월4일(음력 9월9일)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 동참 영가 천도재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 바랍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영계에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번영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계에 계신 조상님들에게 진리의 경을 독송, 공양드려 진리를 자각하시도록 헤드리고 자손들의 안녕을 빌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천도재에 동참하시어 선망조상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시고, 그 인연공덕으로 다점생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영가, 낙택지, 유산지, 망자 천도재를 위해 영가 옷, 더러니는 일체 제공합니다 ■

- ▶ 천도재 일시 : 2003년 10월 4일(음, 9월 9일) 오전 11시
- ▶ 천도재 장소 : 대원정사 대법당
- ▶ 천도재 동참비 : 영가 1인 10만원

※ 자세한 내용 문의와 동참 접수는 종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031)855-5501, 3

대원정사 지장대불 및 각 산신님 3존불 시주 동참 바랍니다